



## 레바논

# 미국과 시리아간 긴장 고조의 영향으로 정치적 불안정 계속

레바논은 1975년에 시작되어 1990년까지 15년간이나 지속된 기독교계 주민과 이슬람계 주민간의 내전이 남긴 후유증을 현재도 겪고 있다. 내전을 계기로 이웃한 군사강국 시리아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레바논은 최근 미국과 시리아간 긴장 고조의 영향으로 또 다시 정치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 4월 15일, 하리리 총리 전격 사임 발표

레바논 대통령실은 4월 15일 성명을 통해 하리리(R. Hariri) 총리가 사임했다고 발표하였다. 성명은 총리의 사임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라후드(E. Lahoud) 대통령이 그의 사임을 수용하고 새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관리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하였다. 레바논 헌법에 따라, 내각은 총리의 사임과 더불어 총사퇴

하였다.

레바논의 총리직은 수니派 이슬람교도, 대통령직은 마론派 기독교도<sup>1)</sup>, 의회 의장은 시아派 이슬람교도가 각각 맡고 있다. 이는 지난 1943년에 체결된, 상이한 종교 집단들이 국가와 행정기관에 동등한 대표권으로 참여한다는 원칙을 정한 국민협약에 따른 것이다. 동 협약에 따라 30인 구성의 내각과 128인 구성의 의회 역시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가 각각 반반씩을 차지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업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사업가 출신의 하리리는 1992년 총리에 임명된 이후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2년간을 제외한 현재까지 9년간 총리로 재임하면서 내전의 황폐에서 레바논을 재건한 공로를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2000년 10월에 구성된 레바논 내

1) Maronite Christian. 동방 정교회(Orthodox Church)의 의식을 채용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일파로, 주로 레바논에 거주함.

각은 그 동안 경제개혁과 국내정치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그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전부터 개각이 예상되었는데, 이라크 전쟁 등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어 왔다.

레바논은 정치·군사적 후견국으로 자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리아의 후원을 받고 있는 라후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 동안 대중에게 인기가 없는 재정개혁 정책을 자주 추진해온 하리리 총리를 비난하면서 최근 수개월 동안 정치적 논쟁에 휩싸여 왔다. 하리리 총리는 300억 달러에 이르는 레바논의 공적채무를 축소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개혁과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건축적 재정정책의 실시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외채상환으로 재정순수입이 감소하여 반대파들의 비난을 받아 왔다. 그의 사임은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 대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지원해 왔으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을 계속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배경을 놓고 갖은 추측이 난무하였다.

#### 4월 16일, 하리리 총리 사임 하루만에 총리직 복귀

그러나 하리리 총리는 사임 하루만인 4월 16일 총리직에 복귀하였다. 라후드 대통령은 의회의 결정<sup>2)</sup>에 따라 하리리 총리에게 신정부 조각을 의뢰하는 한편, 새 내각의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 맡아 주도록 요청했다.

앞서 정치 분석가들은 하리리 총리의 사의 표명이 처음부터 시리아의 압력에 의한 각본에 따른 조치라고 지적하며, 몇몇 장관들을 교체해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선에서 親시리아계 정부가 재출범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라크 이후 미국의 다음 공격 목표로 떠오른 시리아가 미국과의 긴장 상황에 집중하려면 레바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후방이 안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시리아 정부가 레바논의 내각을 보다 親시리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총리의 사임 및 재신임을 연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對중동정책에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은 시리아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시리아에 대해 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親이란계 시아派 게릴라 단체 헤즈볼라("神의黨")에 대한 지원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거점이며, 헤즈볼라 게릴라들은 지난 2000년 이스라엘이 22년간 점령해온 남부 레바논에서 철군토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란과 시리아는 물론 레바논의 親시리아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단순한 게릴라 단체가 아닌 합법적인 정당으로 레바논 의회에도 진출해 있다. 따라서 미국의 對시리아 위협은 레바논에도 즉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2) 라후드 대통령과 128명의 의원들은 하리리 총리의 사임 직후 장시간 총리 지명 문제를 협의했으며, 93명의 의원들이 하리리 총리의 재신임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4월 17일, 親시리아계 내각 구성 발표

하리리 총리는 4월 17일 예상대로 親시리아계 인사들로 대폭 채워진 새 내각을 구성·발표했다. 이번 내각은 하리리 총리가 이끄는 5번째 정부가 된다. 새 내각의 두드러진 특징은 親시리아계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여, 1989년 시리아가 레바논 정치를 배후에서 조종하게 된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새로 내각에 진출한 각료가 11명에 달하며, 反시리아계 기독교 인사가 1명도 지명되지 않은 점도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새 내각이 시리아의 레바논 장악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세력도 거국적 차원에서 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분석가들은, 대중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하리리 총리의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親시리아계 기독교도로 교육장관을 지낸 바 있는 오베이드(J. Obeid)가 외무장관으로 지명되었으며, 함무드(M. Hammoud) 외무장관이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새 내각의 주요 변화로 지적된다. 또한, 헤즈볼라 인사가 전면 배제되었는데, 이는 최근 미국의 對시리아 압력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내각에 진출한 11명 가운데는 내전 당시 최대 기독교 정파이며 민병대 조직이었던 팔랑헤黨 출신 파크라두니(K. Pakradouni) 행정개혁장관이 눈에 띈다. 팔랑헤 민병대는 내전 당시 시리아의 레바논 지배에 반대했으나, 최근 수년 사이 親시리아 노선으로 기울었다. 분석가들은 새

내각이 지금까지의 정치·경제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레바논 내전의 역사적 배경

레바논의 역사는 기원전 3000년 경 고대 페니키아인들의 군소 왕국으로 시작된다. 기원전 64년 로마 제국의 속주로 합병된 이후, 6세기에 시리아에서 박해를 피해 들어온 기독교도들이 북부에 정착하여 오늘날의 마론포 기독교가 성립되었다. 7세기에 이슬람교도가 시리아를 정복한 이후 아랍 부족민이 남부에 자리를 잡으면서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가 공존하는 레바논 사회의 바탕이 형성되었다. 16세기 초엽 이후에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하에 놓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프랑스군정하에 놓였으며, 1923년 국제연맹이 시리아와 레바논의 통치를 정식으로 프랑스에 위임하였다.

1946년 말 프랑스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레바논은 다른 아랍 국가들과는 달리 앞선 정치제도와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중동의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기독교계 주민들보다 자신들의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자각한 이슬람계 주민들이 汎아랍주의에 힘을 얻어 1958년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중앙정부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이슬람계 주민들 사이에는 기독교계가 국가와 행정기관에서 과도하게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 같은 불만을 부채질한 것은 팔레스타

인 난민의 존재였다. 1948~49년의 아랍-이스라엘 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레바논 남부의 난민촌에 정착했으며, 1970년에는 요르단에서 추방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레바논 남부로 거점을 옮기고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북부를 여러 차례 습격하였다. 이에 기독교계가 우세한 레바논 정부는 PLO의 레바논 내 군사활동을 억제하려 하였고, 기독교계와 이슬람계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PLO는 이슬람계를 지지하였다. 1975년 마침내 이슬람계와 좌파 및 팔레스타인 난민이 결탁하여 기독교계를 공격함으로써 내전이 발발하였다.

기독교 민병대가 이슬람계와 좌파 및 팔레스타인계의 공세에 밀리자, 이슬람계가 레바논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는 이스라엘이 개입할 것을 우려한 시리아는 오히려 기독교 민병대를 지원하기 위해 병

력을 투입하였다.<sup>3)</sup> 또한 내전 발발을 틈타 1978년에 남부 레바논을 장악한 이스라엘도 PLO 군사조직을 레바논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해 1982년 레바논을 침공하면서 상황은 더 한층 악화되었다.

1990년 내전 당사자간에 종전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국가를 피폐 상태로 몰아넣은 내전은 15년만에 종결되었으나, 레바논은 시리아군의 주둔과 이스라엘군의 남부 지역 장악, 이스라엘군을 몰아내려는 헤즈볼라 게릴라의 테러 활동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권국가로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현재까지도 레바논은 시리아군의 계속적인 주둔<sup>4)</sup>, 비록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헤즈볼라 게릴라의 테러 활동 등 내전으로 인한 혼란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 경 일】

3) 이후 기독교 민병대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서 시리아와 반목하는 사이가 되었으나, 최근 수년 사이 친 시리아로 방향을 선회하였음.

4) 시리아는 현재 약 15,000명의 군대를 레바논에 주둔시키고 있음.